

Essay on Veterinary History XIV

수의과대학의 설립

천명선 (주)동아사이언스 연구원

중세에 처음 '대학'이 설립된 것은 1200년 경이다. 중세 대학의 전공은 그다지 다채롭지 못해서 신학과 철학, 법학, 의학에 한정되었다. 의학이 그 탄생부터 고등교육 기관에 자리잡았던 것과는 달리 수의학은 18세기에 들어와 비로서 근대 학문으로서 그 형식을 갖추기 시작한다. 당시 전 유럽을 휩쓸었던 우역(rinderpest)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을 해결해야 했던 것은 물론이고 군용으로 조달해야 했던 말의 질병을 돌보기 위해서도 전문 교육을 받은 수의사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 그 배경이다. 모든 시작이 그러하듯, 근대 수의학 교육의 시작 역시 결코 희망에 찬 것만은 아니었다.

최초의 수의학고, 프랑스 리옹에 세워지다

1762년 끌로드 부겔라(Claude Bourgelat, 1712-1779)는 프랑스 리옹에 수의학고 Ecole veterinaire를 세웠다(그림 1). 그는 수의사가 아니라 리옹에 있는 승마학교를 운영하며 말 치료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나름대로 해부학이나 병리학을 수학하기도 했지만 그의 수의학적인 지식이 전문적인 수의사를 양성하기에는 부족했을 것이다. 이는 리옹의 수의학고 뿐만이 아니라 초기 유럽 수의학고의 전반적인 문제점이기도 했다. 부겔라가 파리 부근(Alfort)에 설립한 두 번째 수의학고의 예를 보면 교육 프로그램 역시 신뢰할 만한 수준의 것은 못됐던 것 같다. 학생들은 대개는 말굽을 손질하는 장제사(裝蹄師) 출신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큰 돈을 들여 바닷가로 가서 수생생물의 해부학을 공부하거나 때때로 사람의 골절합술 같은 수업을



그림 1. 끌로드 부겔라
(Claude Bourgelat, 1712-1779)



그림 2. 페터 크리스티안 아빌드가드(Peter Christian Abildgaard, 1740-1801)



그림 3. 코펜하겐 왕립 수의과대학에서의 수술 장면 (1898)

듣기도 하는 등 실제 임상을 위해 그다지 쓸모없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시골에서는 위급상황에 수의사가 사람도 치료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부겔라는 이런 어이없는 교육과정들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하지만 리옹과 알포트의 수의학교는

후에 전 유럽에 세워진 수의학 교육기관의 효시로써 큰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알포트의 수의학교에는 외국인 학생들도 적지 않았는데, 이들 중에는 덴마크의 아빌드가드(Peter Christian Abildgaard, 1740-1801)나 오스트리아의 스코티(Ludwig Scotti, 1728-1806)처럼 후에 고국에 돌아와서 수의학교를 세운 사람들도 있다(그림 2, 그림 3).

초기 수의학 교육의 문제점

18세기 말 전 유럽에 걸쳐 수의학교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1766년에 알포트에, 오스트리아 빈에는 1767년, 곧이어 독일의 괴팅엔과 기센, 하노버, 뮌헨, 이탈리아의 투린, 파두아, 영국의 런던, 스위스와 러시아에도 수의학교가 설립되었다(그림 4, 그림 5). 아메리카 대륙에는 약간 늦은 19세기 초에 수의학교가 세워졌다. 하지만 수학을 학문으로써 그리고 '대학'교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역시 시간이 걸렸다. 일부에서는 수학을 '동물을 치료하는 단순한 기술' 정도로 폄하하기도 했다. 게다가 수의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진은 대개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었는데 동물에 대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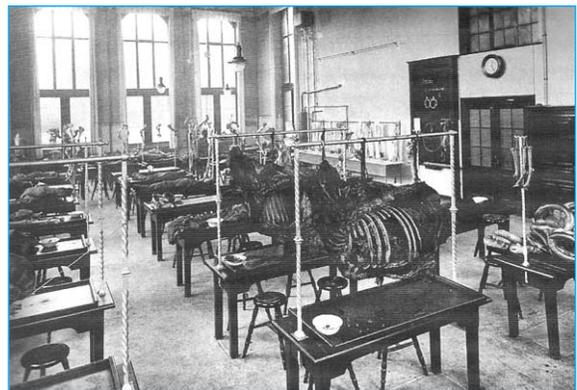


그림 4. 독일 하노버 수의과대학의 해부학 실험실



그림 5. 한 수의학교의 실습장면 (벨기에, 1884)

경우에는 차라리 장제사들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나을 정도였다. 또한 수의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질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했다. 1801년에 설립된 뮌헨 수의학교의 경우 첫해에 8명만이 학교에 등록을 마쳤는데 그 중에서 읽고 쓸 수 있는 이는 단 두 명뿐이었다고 한다. 교과과정 안에 포함된 과목은 ‘말에 대하여’, ‘산과학’, ‘해부학’, ‘임상학’, ‘장제학’ 등이었다. 대개의 경우 수의학교를 졸업하면 시험을 보지 않고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의 수의학 교육이란 것이 단지 위급상황에서 동물을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수의학을 학문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 내는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대목이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수의과대학들도 당시에는 부족한 면들이 많았다. 19세기 초, 한 수의사는 동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런던 수의학교의 실상에 대해 이처럼 비판했다.

“런던의 수의학교는 나름대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교육은 엉망입니다. 우선 교수진이 너무 부족하고 ...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누구나 입학하고 아무 때나 학교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학교는 적당한 돈만 받는다면 이를 개의치 않는 듯 합니다....”



그림 6. 알포트 수의과대학의 학위증명서(Marechal-Veterinaire, 1813)

19세기 초, 각국에서 ‘수의사 면허증’을 가진 의사만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법령들이 제정되면서 수의사의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만큼의 수의사를 양성해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제도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도 엉터리 무면허 수의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이들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비싼 학비를 들이고 어려운 공부를 하지 않고도 수의사로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수의학교를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한참 동안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수의사’와 이런 교육 없이 ‘실습을 통해 양성된 수의사’가 공존했다. 하지만 한 세기에 걸쳐 수의학교들은 전문적인 대학 교육 안에 자리잡아 가면서 근대적인 의미의 ‘학문’으로서 그 틀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고급 수의학교육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은 그 흐름을 방해하기도 했다(그림 6). 수의학 박사 학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던 이의 의견은 지금 보기에는 한편의 유머같다.

“말에게는 수의사가 박사 학위를 갖고 있든 아니든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수의사’에게 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말의사’라는 옛 단어야 말로 이들에게 적합한 단어가 아닌가요?”

근대 수의학 교육에서의 여성 수의사

현재 세계적으로 수의과대학에는 여학생이 절대적으로 많다. 일례로 독일 뮌헨 대학의 경우 80% 이상이 여학생이고 다른 나라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우리나라 수의과대학들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은 거의 비슷하지만 점점 여학생의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공무원으로, 연구원이나 임상 수의사로서 여성수의사들의 활약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역사의 한편에서 한 세기전인 1900년대 초 서구에서는 여학생의 입학에 허가하는 것이 이슈화 될 정도였다고 하니, 100년 동안 여성 수의사 선배들이 겪었을 어려움을 가히 상상할 만 하다.

1894년 영국 에딘버러 왕립수의학교에 입학한 알렌 커스트(Aleen Cust)라는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위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커스트는 학위 없는 임상수의사로서 곳곳이 일했고 마침내 학위를 받은 것은 1919년 법적으로 여성의 동등함이 인정된 이후인데, 이 때 그녀의 나이 54세였다. 불행히도 우리는 역사에서 많은 희극을 본다.

우리나라 수의학 근대 교육의 시작

일본이 근대 수의학 교육을 받아들인 것은 19세기 말의 일이다. 고구려의 승려 혜자가 전한 수의학이 ‘태자류(太子流)’로 자리를 잡은 지 근 1500년 가량이 흐른 후이다. 코마바 농학교로 안손, 삿포르 농업학교의 커티교수 등 외국인 교수들을 초빙되어 일본 근대 수의학의 그 기틀을 닦았고 1874년에는 도쿄 수의과대학의 전신인 ‘농사수학장(農事修學場)’이 설립됐다. 이곳에서 교육받은 수의사들이 일제강점기 전후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을 조사하기도 하고 근대 수의학교육을 담당하기도

했을 것이다.

1908년 수원농림학교 '수의숙성과'가 설치되었다. 총 20명의 입학생을 받아 1회 졸업생만을 배출하고 문을 닫기는 했으나,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수의학 교육과정이다. 그 이전에도 농림학교 과정에서 수의해부학이나 수의병리학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수의사를 위한 전문과정은 아니었다.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수의학교육기관의 효시는 1937년 수원고등농림학교 수의축산학과이다. 교육과정은 총 3년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꽤 짜임새가 있어 보인다. 총 20명의 입학생들은 1학년의 국어, 영어, 독일어, 생리학, 화학, 해부학, 조직학, 세균학, 면역학 등 기초과목을 시작으로 2학년에서는 약리학, 병리학, 기생충학, 내과학, 외과학, 진단학 등을 마지막 해에는 병리해부학, 산과학, 가축영양학, 우육학, 가축위생학, 수의법규 등을 수학했다. 다행히도 19세기 초 서구 수의학교에서 겪었던 혼란은 겪지 않은 셈이지만 일제의 필요에 의해 갖춰졌다는 점은 역시 우리의 씩씩한 역사를 잊지 못하게 한다. 

참고자료

- R. H. Dunlop, D. J. Williams: Veterinary Medicine, An Illustrated History, 1996, Mosby, St. Louis
- A.von den Driesch, J. Peters: Geschichte der Tiermedizin, 2003, Schattauer, Stuttgart
- 박전홍: 수의학의 역사, 2002, 마야, 서울
-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50년사, 1998, 대한수의사회
- 中村洋吉, 獸醫學史, 1980, 養賢堂, 東京